

종합

# 왕인은 마한사람?

## “6세기 초까지 마한 존속 ... 왕인은 5세기 渡日”

출생지는 물론 일본으로 건너간 과정 등 왕인 박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왕인이 마한 사람으로 영산강 유역의 인물로 판단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남대 임영진 교수 논문서 새 주장

### 출생지·도일 과정 등 역사학계 논란

임영진(전남대 인류학과) 교수는 박관순 전남대 명예교수 등과 공동 집필한 ‘고대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문화교류 공동 논문집’에서 “5세기 초에 천자문 등 선진문물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간 왕인 박사가 백제인이 아닌 마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왕인박사 논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사료로 미루어 백제가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영산강 유역의 마한을 복속했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6세기 중엽까지 마한이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史實)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추정되는 5세기 초는 영



왕인박사의 초상화.

산강유역에서 30~40m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이 축조되는 등 문화가 번창하면서 일본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다”며 “왕인 박사는 이 과정에서

영산강 유역(영암 구림 상대포구)에서 마한 사람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다양한 신문물을 전해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관순 명예교수는 “역사학계에서는 왕인이 일본에 전해준 천자문이 6세기 때 양나라의 주홍사라는 인물이 편찬한 것으로 5세기에 왕인이 이를 일본에 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분명 3세기에도 천자문은 존재했다”며 기존 학설을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는 주홍사 천자문 외에도 여러 천자문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3세기 위나라 때 중요가 편찬한 천자문이 있기 때문에 왕인이 다른 천자문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왕인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학설을 배척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본에서 학문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왕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 한·일 문화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연필기자 penfoot@kwangju.co.kr

# “하계 U대회 유치 이벤트 아이디어 내세요”

## 197,000원

### 광주시 내달 8일까지 시민 대상 공모

광주시는 28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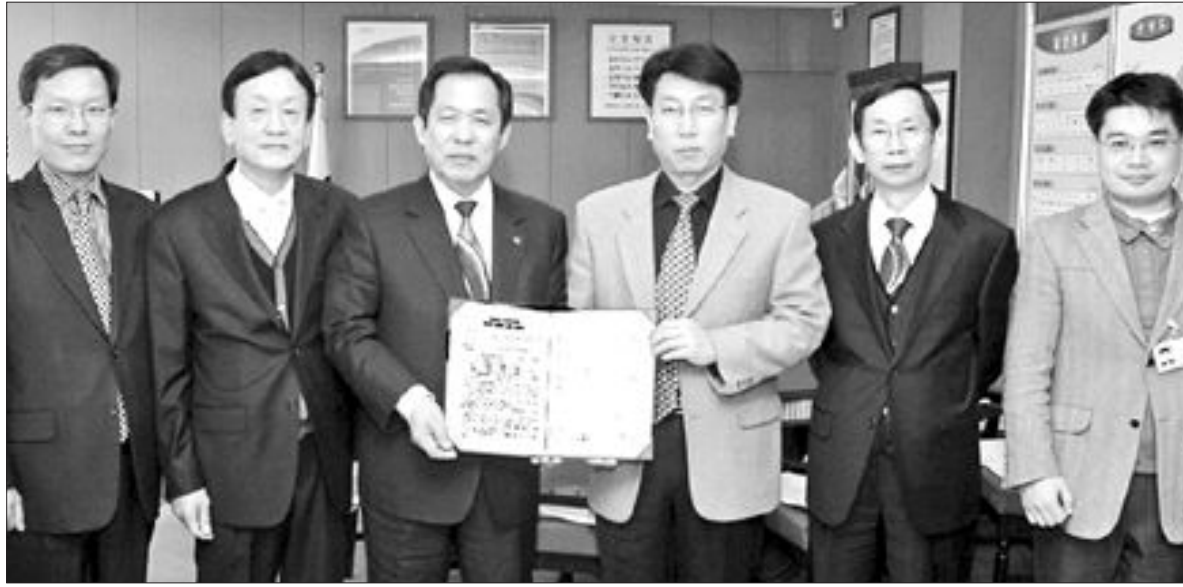
2월 8일까지 공모하는 이벤트 내용은 시민들의 자발참여와 시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고 참

단산업, 문화수도,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가 담겨야 한다.

특히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가 함축된 내용이 강조돼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벤트 공모에 응하는 시민들은 1인당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 1편에는 5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30만원, 장려상 2편에 각 10만원 등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된 아이디어는 유니버시아드 유치 붐 조성 행사에 반영돼 2월부터 개최지 발표일인 5월23일까지 각종 행사에 활용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서구(구청장 전주연·왼쪽에서 세번째)와 (주)하림연은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관 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약취제거제 ‘광(光) 클린S’ 생산·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항이 올해 물동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1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증가한 200만TEU를 확보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 전남 서해 기름유출 피해 어민 내달부터 배상 청구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민들의 배상청구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8월 배상청구를 마친 김양식장 피해어민의 경우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전남도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2만75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피해 입증이 쉬운 김양식 어민들이 지난해 8월 175건에 248억원을 배상 청구했다. 전남도는 이들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체 피해 건수의 50%가 넘

#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

## 올 200만TEU 목표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광양항이 올해 물동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1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증가한 200만TEU를 확보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전남도와 광양항 등에 따르면 1998년 개항한 광양항은 그동안 연 20%대의 높은 물동량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물동량이 182만TEU를 기록, 전년(171만TEU)에 비해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양시와 여수해양청, 경제자유구역청, 한국부두공단, 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양항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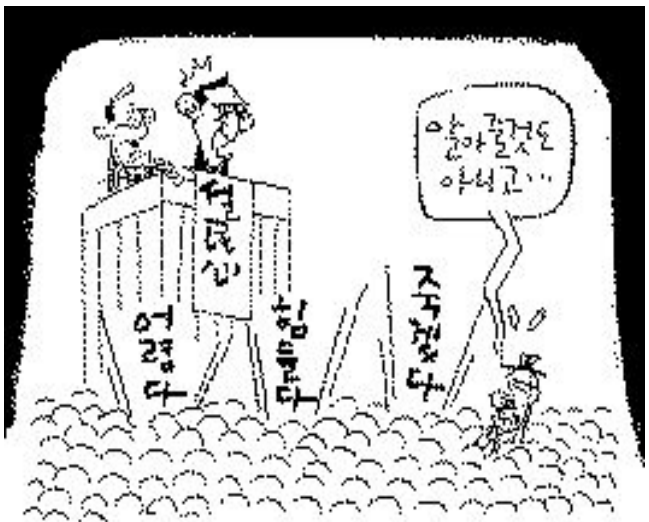
케팅기획단’을 구성, 올해 물동량을 200만TEU로 늘려잡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동마케팅 계획에 따라 6개 기관·단체는 해외 분야에서는 3월 중국 석재전시회 홍보를 시작으로 5월 유럽지역 포스트세일즈, 11월 두바이 항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해외 포스트세일즈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5일 경인지역 해운광명물류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하고 산업단지 순회 물류량 유치 홍보설명회, 주요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등 국내 포스트세일즈에도 나선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 빛의 만평

- 김중두



앞으론 묻지도 마세요

# 기업들 접대비 실명제 없앤다

##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으로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일괄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 인사말씀

수교소생의 모친 김효순님 喪事(2009년 1월 19일)에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림하시어 정중하신弔慰와 厚意를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루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올봄 찾아 뵙고 人事를 율하여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드림을 寬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진심으로 祈願드립니다.

2009년 1월 29일

哀子 嗣子 孫 女

- 박중석 자부
- 박중혁
- 박중오
- 박진희
- 박진애
- 박준범
- 박문섭
- 박문호
- 박준용
- 박상현
- 김혜신
- 박정교
- 문연향
- 최기현
- 조형권
- 최인화
- 최현준
- 조성용
- 조윤주

- (주)대호산업
- (주)삼오테크
- (주)대한타이어공업
- (주)플러버
- (주)타이아넷
- (주)퍼시픽 트레드
- (주)한국비지니스코칭

수교소생의 모친 김효순님 喪事(2009년 1월 19일)에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림하시어 정중하신弔慰와 厚意를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루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 2009년도 지역혁신센터(RIC) 디지털로설계고도화지원센터 시제품지원사업 제안서 공모

지식경제부 지원 광주과학기술원 디지털로설계고도화지원센터에서 시제품지원사업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광주시 광산업 및 전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 전지역 전자부품 기업체의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에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신학협동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2. 기술분야**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FPGA/DSP칩 기반 디지털로설계에 관련된 제반분야
- 3. 사업기간**  
○ 2009. 2. ~ 2017. 2.사업 참여기간은 1년 단위
- 4. 신청자격**  
○ 광주-전남 전자부품 기업체
- 5. 공모기간**  
○ 2009년 1월 28일 ~ 2월 4일
- 6.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HWP파일)  
※관련서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ric.gist.ac.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E-Mail 및 방문접수  
나.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지원동 GTT 2F 지역혁신센터  
다. 문 의 : ☎ 062)970-3108 E-Mail : soonsoo@gist.ac.kr  
담당자 : 박혜애 연구원

GIST 광주과학기술원 디지털로설계고도화지원센터(RIC)

#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9년 1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2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월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8일

주식회사 코인전

광주광역시 서구 처평동 226-19

대표이사 홍승영

# 분묘개장공고(2차)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광주도시계획시설(도보)종로2-288호선(김종W-PARK II 아파트주변)개장공사에 관여되는 분묘에 대하여 공사 등에 영향 받을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이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소유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김중순	산116	임야	8기
김중호	산119	임야	2기
계			10기

※ 산기지번 : 김종W-PARK II 아파트주변 도로개공사로 인하여 본묘가 위치로 변경되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 2.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3. 기명방법**: 무연분묘(시정지정) 무연분묘(연구자협의지정)
- 4. 기명사유, 기명후 안락장소 및 기간**  
가. 기명사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보)종로2-288호선(김종W-PARK II 아파트주변)도로개장공사 관련  
나. 기명후 안락장소: 영마광(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00-2번지)  
다. 안락기간: 2009년 ~ 2019년(10년간)
- 5. 신고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청(10(농성동289) 건설대안센터과 도로팀(062-360-7537))
- 6. 구명서류**: 연구자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역보, 기증, 사실확인서등)
- 7. 산기분묘의 연구**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실시정사건의 개명(제출)한다. 또한, 산기지번의 사용자주권인보에서 추경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신고/간접 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인의개명 처리하겠습다.